

첨삭답안	연세대학교 2011 죽음 1번	작성자	매튜힐리 님
------	------------------	-----	--------

**[문항 1]**

제시문<가>와 <다>는 인간이 가지는 특수성으로 죽음에 대한 사유능력을 인정하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

1. 먼저 제시문<가>는 사후 세계를 인정한다. 죽음이 단순히 삶의 끝이 아닌 사후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제시문<가>는 죽음에 대해서 다소 두려움 없는 태도를 보인다. 2. 한편 제시문<다>는 사후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죽음은 아름다운 것을 추악하고 악취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즉 죽으면 부패하여 자연으로 돌아가는, 죽으면 끝나는 것이라는 <가>와 상반된 태도를 보인다. 또한 이러한 인식은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느끼게 하며 죽음에 대한 사유를 기피하게 한다.

이렇게 죽음의 대한 두 제시문의 태도 차이는 매장에 대해서까지 이어진다. 제시문<가>는 사후 세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죽는 이를 단순히 잇는 행위로서 매장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이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노력과 정성을 들여 묘지를 화려하게 꾸미려고 한다. 반면에 제시문<다>는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에 매장에 있어서 노력과 정성을 투자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라고 지적한다. <다>는 죽으면 부패하여 추악해지기 때문에 매장을 하는 것이기에 묘지의 호화로움은 필요치 않다고 말한다. 3. 결국 제시문<다>는 죽음에 대한 태도로 인해 살아 생전의 삶에 집착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제시문<가>의 측면에서 동물이 죽음에 대해 기피하는 행위와 같은 것으로 <가>의 입장에서 다소 인간이라면 취하지 않을 행동을 취하는 것과 같다.

제시문<나>는 제시문<가>,<다>와 달리 죽음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죽음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도 무시하는 것이 아닌 죽음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는 죽음을 대면한 주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제시문<가>와 <다>는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사유할 수 있지만 <나>는 고릴라라는 동물이 주체이기에 죽음을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따라서 제시문<나>의 고릴라들의 행동은 제시문<가>가 말하는 것처럼 동물이기에 죽음을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릴라들이 죽은 마체사에 대해서 털을 고르거나 젖을 찾는 등 일반적인 행동을 취한다. 또한 죽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반응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때리거나 밀치는 등 지속적으로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한다. 이는 결국 죽음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첨삭 포인트]**

1. (가)에서는 죽음의 사후세계에 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니다, 인간만이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것과 그 능력을 통해 죽음을 삶과 연결로 바라본다는 것이 제시문의 내용이죠. 제시문의 논조에서 벗어나는 답안입니다.
2. 이 또한 1번 지적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제시문에 대한 제대로 된 독해가 이뤄지지 않아, 논조가 제시문의 핵심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3. 3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동물은 죽음을 인식하지도 못하는데 어째서 제시문 (다)의 인간이 삶에 집착하는 것을 (가)의 동물의 죽음에 대한 기피와 같다는 주장이 가능할까요. 만약 이 문장이 타당하더라도, 답안 서술 자체로는 근거 서술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C+

<b>총평</b>	제시문 (가)와 (다) 내용의 ‘사실’에 근거한 답안이 아니라 ‘사실’을 기반으로 답안 작성자가 ‘추론’한 내용에 근거한 답안이기에 좋은 답안으로 평가되긴 어렵습니다.
-----------	---

사전협의 없는 무단 도용,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